

##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정주원\*<sup>1)</sup>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

### The Study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Career Maturity.”

Jung, Joo Won\*<sup>1)</sup>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 Abstract

“Career maturity” is very crucial for high school students since it has an impact on their career path and decision-making. Not only that, it is also important in self-realization and happiness as well as maximizing human resources. When it comes to understanding high school students’ career path, it is necessary to know how they perceive school life since they spend most of their time in school. It’s also vital to observe in the perspective of students’ personal growth.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daptation to school life” “self-esteem” and “career maturity”. To accomplish this, the 7th additional surveys conducted by Welfare Panel Study were used.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496 high school students in order to come up with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between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self-esteem” as well as the level of “career maturity”.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self-esteem” on “career maturity.” The Baron and Kennny mediation analysis were used to understand the effects when the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comes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career maturit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age for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is 2.07, while it is 1.91 for “self-esteem”. For “adaptation to school life,” the relationship between “obedience to

---

1) 교신저자: Jung, Joo Won, 30 Phildong-ro 1-gil, Jung-gu, Dongguk University, Seoul, 100-715, Republic of Korea  
Tel: 031-713-0239, Fax: 031-713-9974, E-mail: jjwchc@naver.com

school regulations”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toward school life” and “interest in school life” Seco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self-esteem” were thought to be statistically meaningful since it showed that they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Third, “interest in school life” “attitude toward school life” and “obedience to school life” and “relationship with friends” in which all of these are the sub factors for “adaptation to school life” together with “self-esteem” had an influence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Lastly, the relationship between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career maturity” was proved to be influenced by the partial mediating role of “self-esteem”.

As the study seeks to find relationships and the factors that affect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meaningful information is given out for the development and progress of educational programs for “career maturity”. This was done by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and systematic approach towards “career maturity” in the students’ perspective.

**Key words:** 진로성숙(Career Maturity), 학교생활적응(Adaptation to School Life), 학교생활흥미(Interest in School Life), 학교생활태도(Attitude toward School Life), 학교규범준수(Obedience to School Regulations), 친구관계(Relationship with Friends), 자아존중감(Self-esteem)

## I. 서론

고등학교 시기는 진로를 탐색하고 계획하며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진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에 의해 정부에서는 학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7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목을 신설하였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09). 진로란 한 개인의 인생 모습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학생들은 진로성숙을 통해 각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진로 발달 과업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된다. 진로성숙은 개인의 소질과 잠재성을 최대한 발현하고 미래의 행복한 삶을 준비하는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학생 스스로 자신의 삶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여 진취적인 진로개척 능력 및 태도를 함양하게 한다(Hwang & Moon, 2012). 그러므로 진로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고등학생에게 있어 진로성숙은 개인적인 자아실현과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 인적자원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Lim, Chung & Sang, 2001).

진로성숙은 학생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

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 고등학생의 생활을 볼 때, 학교라는 한정된 사회적 환경이 개인적인 성장과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진로성숙에 의미 있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생이 학교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으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Ahn, 1984). 학교는 개인의 성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킬 수 있게 도와주고(Rutter, 1985), 학교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은 향후 직업에서의 성취와 긍정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Hernandez, 1993). 즉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진로성숙은 개인과 환경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개인을 성장하게 한다. 학교생활의 원만한 적응은 자신감을 높게 하고 자아존중감을 키우게 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설계와 고민을 하게 하여 진로성숙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을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파악해 보는 것이 진로성숙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파악함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사료된다.

진로성숙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중요하게 인식되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적인 측면과 교육적인 변인들이 밝혀졌으며, 영향 요인들과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진로성숙을 청소년 시기로 포괄해서 살펴봄에 따라 고등학생에 대한 조사가 다소 미흡하며, 일부지역 조사대상자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국 자료를 활용한 일부 논문이 있으나 진로성숙을 설명함에 있어 요인과의 체계적인 관련성을 파악한 연구는 일부에 그치고 있어 보다 세부적인 파악이 요구된다(Mun & Park, 2003; Lee & Kim, 2004). 진로에 대한 이해는 학생의 측면에서 그들이 인지하는 학교에 대한 생각과 개인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진로성숙이 개인적인 환경 적응 및 내적 성장과 관련되어 파악될 때,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진로성숙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진로교육 수행에 긍정적 작용을 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12년 7차년도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성숙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성을 파악한 본 연구는 학생측면에서의 진로성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진로성숙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에 있어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II. 선행 연구 고찰

### 1.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고등학생 시기는 미래 직업에 대한 예비적 탐색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결정하는 발달과업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이다(Super, 1990). 진로에 대한 선택과 결정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진로성숙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진로성숙은 진로발달 이론으로부터 나온 개념으로 전 생애과정에서 직업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 능력이며, 한 개인이 속해 있는 연령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진로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이다(Super, 1953). 즉 사실적이고 다양한 정보로 이루어진 자기 인식과 연령에 맞는 진로탐색을 통해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개인적인 준비 과정이 되는 것이다(Walker, 2010). 전 생애 발달이론의 측면에서 논의되는 진로성숙은 개인의 생애사와 깊은 관련을 두며 장시간에 걸쳐 구성되는 것으로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성숙은 매우 중요하다(Park & Seong, 2008).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성숙은 탐색기에 해당하는데, 막연한 진로의식에서 탈피하여 자신의 욕구, 흥미, 가치, 취업기회 등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토대로 진로 및 직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단계이다(Super et al., 1992).

Crites(1978)는 진로성숙을 동년배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준비의 정도로 진로선택과 결정을 할 때 자신에게 올바른 진로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1992)에서는 진로성숙을 자아의 이해 및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과정으로, 동일한 연령이나 발달단계에 있는 집단의 발달과업 수행정도에서 차지하는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Lim et al.(2001)는 진로성숙을 자기주도적으로 진로탐색과 계획을 하기위해 필요한 정서적 태도 및 인지적 능력과 자신의 결정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Kim(2013)에 의하면 진로성숙이란 진로에 대한 인식, 탐색, 의사결정에 이르는 발달적 변화를 의미하고, 자신과 진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어떻게 계획하고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반응경향이라 하였으며, 여기에는 진로계획과 결정을 위한 신념과 함께 진로문제 발생 시 해결하는 대처능력까지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살펴보면, 진로성숙은 전 생애적인 측면에서 개발되고 발달되어지는 중요한 과업으로, 자아개념을 중요시하여 자신에게 맞는 진로탐색을 통해 진로를 계획하고 선택하는 개인적인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진로성숙은 동일한 연령집단에서의 상대적 진로발달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로성숙이 높은 학생은 진로성숙이 낮은 학생에 비해 자신에게 부합되는 진로를 올바르게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하며, 진로에 대한 인식과 발달이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성숙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으로는 성별, 학년, 성적, 소득수준 등이 나타나는데, 성별은 남학생(Ha, 2006), 여학생(Kim, 1989; Kim, 2001; Lim et al., 2001; Jeong, 2005; Kim & Lee, 2007)이 각각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학년은 진로성숙과 정적인 관계로 영향력을 나타내며(Kim, 1989; Brown & Lent, 2005; Park & Seong, 2008), 학업 성적 또한 성적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더 높게 나타나는 유의미한 영향 변인으로 나타났다(Kang, 1997; Na, 1999; Sau, 2002). 그리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나타났다(Choi, 2007).

이에 본 연구는 성별, 학년, 성적, 소득수준을 통제변수로 살펴보고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성숙 정도와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그리고 서로의 관계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 2.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성숙과의 관계

학교는 학생들이 주어진 환경적 제반 여건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과 태도, 신념, 가치지향 등을 지도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기관이다(Marsh, 1984).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라는 한정된 환경에서 보내게 되는 고등시기에 개인의 진로성숙은 학교 환경 및 학교생활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고등학교 시기의 가장 중요한 생활의 장인 학교는 학생들의 심리사회적 부분은 물론 개인적 성장과도 관련된 중요한 영역(Park, 1998)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적응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학생이 대인관계나 학교의 기준과 질서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 있는 행동을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규범준수까지 포함하여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

(Woolley & Grogan-Kaylor, 2006). Ahn(1984)은 학교생활 적응을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교육적 환경에 학생 스스로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람직하게 수용하는 것이라 보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학업 성적이 향상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학교와 사회발전에도 기여한다고 하였다. Kim(2000)은 학교생활적응을 학습자가 학교상황 즉 학교수업, 학교생활, 학교내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교의 환경 등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일련의 노력으로, 학교 상황의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학습자의 요구를 잘 조절하는 시도라고 보았다. Park(1998)은 학교생활적응을 ‘적응유연성’이라고 일컬으며, 역경 상황에서도 학업성취도가 높고, 학교생활에 대하여 높은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은 다시 하위영역으로 나뉘는데, 학습생활 태도, 학급생활태도, 교사에 대한 태도, 친구에 대한 태도로 구분하기도 하며(Kim, 1981), 담임교사와 관계, 교우관계, 학습활동관계, 규칙준수관계, 학교행사관계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Lee, 1990). 그리고 Park(1998)은 학교생활적응을 학교와 교사, 수업에 대한 애착과 흥미와 관련된 “학교 흥미”, 성적, 성적의 주관적 의미, 공부에 대한 취미, 학업태도와 관련된 “학교 태도”, 학교 규칙 및 규율과 관련된 “학교 규범”으로 분류하여 바라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7차년도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 자료에서 참고로 한 Park(1998)의 학교생활적응 하위 영역에 친구관계를 포함하여 총 네 가지 하위영역으로 살펴보았다. 즉 학교와 수업에 대한 흥미, 교사와의 애착과 관련된 “학교생활 흥미”, 수업태도, 과제수행의 성실 정도, 교사의 지시수행정도 등 관련된 “학교생활 태도”, 학교 규칙 및 규율과 관련된 “학교생활 규범”,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에 대한 “친구와의 관계”를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으로 보았다.

이러한 학교생활적응은 자아존중감 및 진로성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우선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과의 연구를 살펴보면,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의식이 높게 나타나며 학교생활적응과 진로

의식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Park, 1999). 그리고 학교 생활적응과 진로결정 수준은 서로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졌으며(Mun, 2005), 남녀 청소년 모두에서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ho, Choi & Um, 2006).

학교생활과 자아존중감과의 관련에 대하여 살펴보면, Lazarus(1984)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의 특징 중 하나로 자아기능의 약화를 언급하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열등감이 높으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Yu(2003)의 연구를 보면 학교생활 적응의 하위변인인 담임교사 적응, 교우관계 적응, 학습활동 적응, 규칙준수 적응, 학교행사 적응은 자아존중감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교생활적응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존재에 대한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나 평가이다(Pintrich & Schunk, 2002).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하나의 특별한 개체로 정의하며 자아존중감의 구성요소를 소속감, 능력감, 가치감으로 나누어 보았다. 소속감은 개인이 한 집단의 부분이 되고 구성원들에게 수용과 인정을 받을 때 형성되는 것이며, 능력감은 자기가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잘 구성해내는가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가치감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가치로운가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자기 자신과 다양한 직업적 역할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지각하며, 학과 선택에 대한 관심이나 만족감이 높아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Resnick, Fauble & Osipow, 1970). Super(1953)는 자아존중감이 사람들의 진로환경 인식을 도와주고 결과적으로 성숙한 진로태도발달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일수록 진로성숙이 향상되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Kanfer, Wanberg & Kantrowitz, 2001; Shin & Kim, 2004; Sin & Kim, 2005; Kim, 2007; Kim & Cho, 2007; Kim & Kim, 2007; Lee, 2009). Kim & Kim(2007)

의 연구에서는 자아개념의 진로성숙에 대한 영향력이 다른 변인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hin & Kim(2005)의 연구에서는 인문계열 고등학생의 경우 자아개념이 긍정적일수록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nfer et al.(2001) 연구에 따르면, 자아존중감은 진로결정 노력과 강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임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의 상호 관련성이 나타나므로,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적 역할을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과 각 변인들 간의 관계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문제

이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성숙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성숙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4>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하는가?

#### 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에서 실시한 7차년도 한국복지패널(KoWePS: Korean

Welfare Panel Study)의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7차년도 한국복지패널(KoWePS)은 2011년 1월~12월까지 전국 5,820가구 및 조사가구원을 대상으로 개인적 특성, 소득과 경제활동, 복지육구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주요 인구집단(장애, 아동)의 조사가구원을 대상으로 부가적 조사를 실시한 패널 데이터이다. 7차년도 한국복지패널 중 만 16~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부가적 조사에서는 학교생활, 친구 및 부모관계, 본인의 생각, 행동, 생활 및 건강 상태, 진로 등의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부가조사의 응답자 총 609명중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49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진로성숙 정도와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그리고 서로의 관계성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 3. 변수구성 및 분석방법

학교생활적응 변수는 한국복지패널조사 연구에서 사용한 Park(1998)의 학교생활흥미, 학교생활태도, 학교규범준수 영역에 친구관계를 포함하여 4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생활흥미는 학교생활이 즐겁고, 선생님을 존경하는지, 배우는 교과목에 흥미가 있는지를 3문항으로 물었고, 학교생활태도는 수업태도, 과제수행의 성실정도, 교사의 지시수행정도를 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규범준수는 시험 볼 때 다른

친구의 답안지를 본 경험이나,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나가는 등의 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친구관계는 친구들과 사이가 좋은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는지 등과 관련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영역별로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값은 0.63에서 0.80으로 학교생활태도를 측정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복지패널의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척도(Rosenberg Self Esteem Scale; RSES)를 활용하여 구성되었다. 문항은 지난 1년간 자신에 대한생각으로써 자신을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로 느끼는지, 자신이 많은 재주와 자질을 가졌는지, 유능한지, 자신은 무엇이든 잘할 수 있거나 이를 위해 노력하는지, 자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며, 만족하는지 등에 대해 총 13문항으로 물었다. 문항들은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88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에 적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의 진로성숙척도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개발한 진로성숙도 검사 척도를 참조하여 구성되었다. 문항은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의 정도로 자신의 장점이나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직업 선택을 독립적으로 하는지 또는 부모나 선생님에 의존하는지, 미래 직업을 위한 준비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직업선택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지 등과 관련된 총 21문항이다. 구성된 문항은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496)

Variables	Range	N (%)	Variables	Range	N (%)
Grade	Freshmen in High School	173 (34.9)	Residential	Seoul/Metropolitan City	223 (44.9)
	Junior in High School	165 (33.3)		Medium-sized City	194 (39.1)
	Senior in High School	158 (31.9)		Town	79 (15.9)
School Records	Poor	27 (5.4)	Households	Ordinary Households	366 (73.8)
	Below Average	124 (25.0)		Low-income Households	130 (26.2)
	Average	189 (38.1)	Monthly Living Expenses (Unit : 10,000won)	≤200	80 (16.1)
	Above Average	130 (26.2)		300	104 (21.0)
Excellent	26 (5.2)	400		95 (19.2)	
Gender	Female	245 (49.4)	500	81 (16.3)	
	Male	251 (50.6)	> 500	136 (27.4)	
Religion	Yes	225 (45.4)			
	No	271 (54.6)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성을 입증을 위한 Cronbach's  $\alpha$  값은 .85로 진로성숙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진로성숙에 대한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진로성숙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인구통계적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연구를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로는 학년, 성적, 성별, 소득에 따른 가구구분을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에 대한 정보는 <Table 2>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측정 변수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하였다. 또한 진로성숙에서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변인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법을

Table 2. Construction of Variables

Variable		Value of Variables	Property
Control Variables	Grade	Freshmen in High school=1 Junior in High school=2 Senior in High school=3	Dummy Variable
	School Records	Poor=1 Below Average=2 Average=3 Above Average=4 Excellent=5	Continuous Variable
	Gender	Female=0, Male=1	Dummy Variable
	Households	Low-income Households=0 Ordinary Households=1	Continuous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s	Adaptation to School Life	Interest in School Life (3questions)	Never=0 Rarely=1 Usually=2 Always=3 Continuous Variable
		Attitude toward School Life (3questions)	Never=0 Rarely=1 Usually=2 Always=3 Continuous Variable
		Obedience to School Regulations (3questions)	Never=0 Rarely=1 Usually=2 Always=3 Continuous Variable
		Relationship with Friends (4questions)	Never=0 Rarely=1 Usually=2 Always=3 Continuous Variable
Mediating Variable	Self-esteem (13questions)	Never=0 Rarely=1 Usually=2 Always=3 Continuous Variable	
Dependent Variable	Career Maturity (21questions)	Never=0 Rarely=1 Usually=2 Always=3 Continuous Variable	

Table 3. Tendency of Adaptation to School Life, Self-esteem and Career Maturity

Category		M	SD
Adaptation to School Life	Total	2.19	.32
	Interest in School Life	1.86	.50
	Attitude toward School Life	2.07	.50
	Obedience to School Regulations	2.51	.48
	Relationship with Friends	2.31	.45
Self-esteem		1.91	.46
Career Maturity		2.07	.35

사용하였으며, Sobel 방정식(1982)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과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종속변수에 대하여 규명하고자하는 변수(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의 영향력만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종속변수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변수들(학년, 성적, 성별, 소득수준)을 회귀분석모델에 먼저 투입하고, 다음단계에 독립변수(학교생활적응), 매개변수(자아존중감)를 차례로 투입시킴으로써 규명하고자하는 변수의 순수한 효과를 측정하였다.

최저 0점, 최고 3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은 2.19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별 일반적 경향은 학교규범준수가 2.5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친구관계 2.31, 학교생활태도 2.07, 학교생활흥미 1.86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고등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함에 있어,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교사의 지시나 학교에서 정해진 규칙수행과 같은 학교규범은 잘 준수하는 편이나, 교사나 교과목 등에 대한 흥미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1.91로 나타났으며,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의 정도를 측정한 진로성숙은 2.07로 나타났다.

#### IV. 연구 결과

##### 1.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성숙 수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의 일반적 경향은 <Table 3>과 같다. 학교생활적응과 그 하위영역은

##### 2.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성숙 관계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분석결과, 고등학생의

Table 4. Correlation between Career Maturity,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Self-esteem

Category	Career Maturity	Adaptation to School Life					Self-esteem
		Total	Interest in School Life	Attitude toward School Life	Obedience to School Regulations	Relationship with Friends	
Career Maturity		1					
Adaptation to School Life	Total	.46***	1				
	Interest in School Life	.28***	.72***	1			
	Attitude toward School Life	.33***	.74***	.42***	1		
	Obedience to School Regulations	.28***	.68***	.33***	.35***	1	
	Relationship with Friends	.37***	.55***	.16***	.21***	.15***	1
Self-esteem		.44***	.49***	.42***	.32***	.31***	.29***

\*\*\* p < .001 \*\* p < .01 \* p < .05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성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잘할수록 즉,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과제수행 등 학교생활태도를 성실히 하며, 학교규범을 잘 준수하고,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학생일수록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 관계도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밝힌 Kim(2001), Kim & Cho(2007), Kim & Kim(2007), Kim & Kim(2007), Lee(2009) 등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 3.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인구통계적 변수인 학년, 학교성적, 성별, 소득에 따른 가구형태를 통제한 상태에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1단계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독립변수로, 2단계에서는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진로성숙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공차한계와 분산팽창요인값을 살펴본 결과,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 값이 0.7이상이고, 분산팽창요인값이 2

Table 5. Relative Influence of Career Maturity

Category	Step 1			Step 2			
	B	S.E.	β	B	S.E.	β	
Constant Term	18.62	2.42		17.41	2.34		
Control Variables	Freshmen in High School (Senior in High School=0)	-1.36	.72	-.09	-.97	.70	-.06
	Junior in High School (Senior in High School=0)	-1.52	.73	-.10	-1.15	.70	-.07
	School Records	.48	.34	.06	.17	.33	.02
	Male(Female=0)	.27	.59	.02	-.24	.57	-.02
	Ordinary Households (Low-income Households=0)	.13	.67	.01	.09	.65	.01
Adaptation to School Life	Interest in School Life	.54	.23	.11*	.15	.23	.03
	Attitude toward School Life	.72	.23	.15**	.64	.23	.13**
	Obedience to School Regulations	.72	.23	.14**	.52	.22	.10*
	Relationship with Friends	1.21	.17	.30***	.98	.17	.24***
Self-esteem				.34	.06	.28***	
F		17.48***			20.78***		
R <sup>2</sup>		.25			.30		
Adj. R <sup>2</sup>		.23			.29		

\*\*\*  $p < .001$  \*\*  $p < .01$  \*  $p < .05$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로 학교생활적응을 투입한 결과, 학교생활흥미( $\beta=.11$ )가 높을수록, 학교생활태도( $\beta=.15$ )가 좋을수록, 학교규범( $\beta=.14$ )을 잘 준수할수록, 친구관계( $\beta=.30$ )가 좋을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친구관계의 영향력이 가장 크며, 다음으로 학교생활태도, 학교규범준수, 학교생활흥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Cho et al.(2006)의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로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은 28%로 나타나, 1단계보다 5%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 하위영역 중 학교생활태도, 학교규범준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태도( $\beta=.13$ )가 좋을수록, 학교규범( $\beta=.10$ )을 잘 준수할수록, 친구관계( $\beta=.24$ )가 좋을수록 진로성숙의 수준이 높았으며, 자아존중감( $\beta=.28$ )이 높을수록 진로성숙 수준이 높았다. 2단계에서 학교생활적응에 자아존중감의 변수가 투입되면서, 진로성숙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단계에서 진로성숙 수준에 유의적 영향을 보였던 학교생활흥미는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학교생활태도, 학교규범준수, 친구관계는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이 1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 4.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변인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수에 학교생활적응과 하위영역(학교생활흥미, 학교생활태도, 학교규범준수, 친구관계), 종속변수에 진로성숙, 그리고 매개변수에 자아존중감을 두고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변인의 효과분석 방법<sup>1)</sup>을 통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재검증하기 위하여 Sobel 방정식<sup>2)</sup>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6>, <Table 7>과 같다.

먼저 전반적인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분석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수인 학교생활적응은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45$ ), 2단계 검증에서도 독립변수 학교생활적응은 종속변수인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44$ ). 3단계 검증에서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beta=.32$ ),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beta=.44 \rightarrow \beta=.32$ ),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종속변수인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29$ ). 따라서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생활적응은 진로성숙을 22% 설명하였고,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모델은 진로성숙을 28% 설명하였다. 매개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z=6.04$ )이 유의한 부분매개변수임이

1) Baron과 Kenny(1986)의 매개변인의 효과분석 절차

1단계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

2단계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예언해야 한다.

3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동시에 종속변수를 예언하도록 하는 회귀분석에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를 유의하게 예언하면서 2단계의 독립변수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줄어든다. 이때, 독립변수의 영향력이 유의한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완전매개, 영향력이 감소하기는 하지만 무의미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분매개로 볼 수 있다.

2) Sobel 방정식(1982) :  $Z_{ab} = \frac{ab}{\sqrt{b^2 SE_a^2 + a^2 SE_b^2}}$

a : 1단계 회귀분석에서의 매개변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b : 3단계 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비표준화 회귀계수

$SE_a$  : a의 표준오차

$SE_b$  : b의 표준오차

Z-value가 1.96보다 크다면  $p<.05$ 수준에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나타낸다.

Table 6.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Career Maturity

Independent /Mediating /Dependent Variables	Mediating Effect	B	S.E.	β	t	F	R <sup>2</sup>	Adj. R <sup>2</sup>	
Adaptation to School Life / Self-esteem / Career Maturity	<Step 1> Adaptation to School Life → Self-esteem	.64	.06	.45	10.78 ***	31.19 ***	.28	.27	
	<Step 2> Adaptation to School Life → Career Maturity	.48	.05	.44	10.27 ***	22.65 ***	.22	.21	
	<Step 3> Adaptation to School Life / Self-esteem	Adaptation to School Life Self-esteem	.34	.05	.32	6.83 ***	26.59 ***	.28	.27
	→ Career Maturity		.22	.03	.29	6.28 ***			
	Interest in School Life / Self-esteem / Career Maturity	<Step 1> Interest in School Life → Self-esteem	.35	.04	.37	8.76 ***	23.90 ***	.23	.22
		<Step 2> Interest in School Life → Career Maturity	.17	.03	.24	5.36 ***	9.22 ***	.10	.09
<Step 3> Interest in School Life / Self-esteem		Interest in School Life Self-esteem	.07	.03	.10	2.23 *	19.18 ***	.22	.21
→ Career Maturity			.29	.03	.38	8.43 ***			
Attitude toward School Life / Self-esteem / Career Maturity		<Step 1> Attitude toward School Life → Self-esteem	.23	.04	.25	5.43 ***	15.11 ***	.16	.15
		<Step 2> Attitude toward School Life → Career Maturity	.21	.03	.29	6.34 ***	11.22 ***	.12	.11
	<Step 3> Attitude toward School Life / Self-esteem	Attitude toward School Life Self-esteem	.14	.03	.20	4.53 ***	21.98 ***	.24	.23
	→ Career Maturity		.28	.03	.38	8.73 ***			
	Obedience to School Regulations / Self-esteem / Career Maturity	<Step 1> Obedience to School Regulations → Self-esteem	.26	.04	.26	6.30 ***	17.01 ***	.17	.16
		<Step 2> Obedience to School Regulations → Career Maturity	.19	.03	.25	5.78 ***	10.03 ***	.11	.10
<Step 3> Obedience to School Regulations / Self-esteem		Obedience to School Regulations Self-esteem	.11	.03	.15	3.59 ***	20.61 ***	.23	.22
→ Career Maturity			.29	.03	.38	8.66 ***			
Relationship with Friends / Self-esteem / Career Maturity		<Step 1> Relationship with Friends → Self-esteem	.28	.04	.27	6.50 ***	17.42 ***	.18	.17
		<Step 2> Relationship with Friends → Career Maturity	.28	.03	.36	8.56 ***	16.99 ***	.17	.16
	<Step 3> Relationship with Friends / Self-esteem	Relationship with Friends Self-esteem	.21	.03	.26	6.46 ***	25.70 ***	.27	.26
	→ Career Maturity		.26	.03	.34	8.04 ***			

\*\*\*  $p < .001$  \*\*  $p < .01$  \*  $p < .05$

검증되었다.

학교생활적응을 각 하위영역(학교생활흥미, 학교생활태도, 학교규범준수, 친구관계)별로 나누어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생활흥미에 대해 살펴보면, 1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수인 학교생활흥미는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Table 7. Mediator Path Validation

Path	a (SE <sub>a</sub> )	b (SE <sub>b</sub> )	Z <sub>ab</sub>
Adaptation to School Life → Self-esteem → Career Maturity	.64(.06)	.22(.03)	6.04***
Interest in School Life → Self-esteem → Career Maturity	.35(.04)	.29(.03)	6.49***
Attitude toward School Life → Self-esteem → Career Maturity	.23(.04)	.28(.03)	4.89***
Obedience to School Regulations → Self-esteem → Career Maturity	.26(.04)	.29(.03)	5.39***
Relationship with Friends → Self-esteem → Career Maturity	.28(.04)	.26(.03)	5.45***

\*\*\*  $p < .001$  \*\*  $p < .01$  \*  $p < .05$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37$ ), 2단계 검증에서도 독립변수 학교생활흥미는 종속변수인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24$ ). 3단계 검증에서 학교생활흥미가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beta=.10$ ),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beta=.24 \rightarrow \beta=.10$ ),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종속변수인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8$ ). 따라서 학교생활흥미와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생활흥미는 진로성숙을 10% 설명하였고, 학교생활흥미와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모델은 진로성숙을 22% 설명하였다. 매개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z=6.49$ )이 유의한 부분매개변수임이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학교생활태도와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수인 학교생활태도는 매개변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25$ ), 2단계 검증에서도 학교생활태도는 종속변수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29$ ). 3단계 검증에서 학교생활태도가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beta=.20$ ),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beta=.29 \rightarrow \beta=.20$ ),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종속변수인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8$ ) 따라서 학교생활태도와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생활태도는 진로성숙을 12% 설명하였고, 학교생활태도와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모델은 진로성숙을 24% 설명하였다. 매개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z=4.89$ )이 유의한 부분매개변수로 검증되었다.

다음으로 학교규범준수와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수 학교규범준수는 매개변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26$ ), 2단계 검증에서도 학교규범준수는 종속변수인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25$ ). 3단계 검증에서 학교규범준수가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beta=.15$ ),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beta=.25 \rightarrow \beta=.15$ ),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8$ ) 따라서 학교규범준수와 진로성숙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규범준수는 진로성숙을 11% 설명하였고, 학교규범준수와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모델은 진로성숙을 23% 설명하였다. 매개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z=5.39$ )이 유의한 부분매개변수임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친구관계와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1단계 검증에서 독립변수 친구관계는 매개변수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eta=.27$ ), 2단계 검증에서도 친구관계는 종속변수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beta=.36$ ). 3단계 검증에서 친구관계가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beta=.26$ ), 그 영향력이 감소하였고( $\beta=.36 \rightarrow \beta=.26$ ),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은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34$ ) 따라서 친구관계와 진로성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친구관계는 진로성숙을 17% 설명하였고, 친구관계와 자아존중을 포함한 모델은 진로성숙을 27% 설명하였다. 매개 검증의 마지막 단계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크기에 대한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 $z=5.45$ )이 부분매개변수임이 검증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학교생활 흥미, 학교생활태도, 학교규범준수, 친구관계)과 진로성숙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은 진로성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이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함께 바라볼 때 학교생활적응은 자아존중감이라는 매개를 통해 진로성숙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등학생이 학교생활적응을 잘 할수록 그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고, 높은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을 향상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주요한 매개 변인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일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성숙을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의 측면에서 파악해 보고자 7차년도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고등학생 496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성숙의 정도와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그리고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은 평균 2.07이며, 자아존중감은 1.91로 나타났다. 전반적 학교생활적응은 평균 2.19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별 평균을 살펴보면 학교생활 흥미는 1.86, 학교생활태도는 2.07, 학교규범준수는 2.51, 친구관계는 2.31로 나타나, 학교규범준수와 친구관계 정도가 학교생활태도, 학교생활흥미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고, 과제수행 등 학교생활태도를 성실히 하며, 학교규범을 잘 준수하고,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

를 유지하는 학생들이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이 높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의 관계도 정적상관관계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진로성숙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먼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인 학교생활흥미, 학교생활태도, 학교규범준수, 친구관계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하위영역 모두 진로성숙에 유의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을 투입하여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생활흥미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영향력이 다소 감소하고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학교생활적응의 각 영역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분매개역할을 하여 진로성숙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향상을 위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생활적응의 각 하위영역들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으므로 학교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도록, 학교생활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규범을 잘 준수하고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특히 학교생활흥미와 학교생활태도 수준이 학교규범준수와 친구관계 정도보다 약하게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부분을 장려 촉진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이 조성되고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학급 내에서 교사는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로 학생들에게 교수 학습뿐만 아니라 정의적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교사는 학생과 두 가지 측면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는 학생 개인의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정서적인 인간관계이며, 다른 하나는 학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 작업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이다(Park, 1986). 즉 교사는 학생과 학습을 위한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사회적·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 또한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학생

들은 학교에서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하고 강화하며 원활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하게 된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업적인 영역뿐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지속적으로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성실하고 적절한 수업태도를 유지하여 원만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둘째, 진로성숙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준수하고 친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생활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통해 대인 관계와 규범 및 질서에 대한 적절하고 조화로운 행동양식을 배우게 되며, 자신에 대한 올바른 견해 즉 분명한 자아인식을 습득하여 학교와 사회에서 적응 가능한 성숙된 자질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집단생활에 잘 적응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탐색과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학생들의 개별적 상황에 적합한 생활지도를 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학교환경에서 꾸준히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안정된 적응을 하게 되고, 자아에 대한 가치를 높이며 진로에 대한 적극적인 구상과 계획을 세우게 된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하여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인 진로행동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학생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바라는 올바른 진로발달 성장과정일 것이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결과와 함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즉 원만한 학교생활적응이 학생들의 내적성장을 이루어 진로성숙을 향상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공적인 적응경험은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높여줌으로써 긍정적인 자존감을 형성하게 한다. 바로 이 자존감이 자신의 미래 진로와 연결되어 진취적인 설계와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진로성숙의 향상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과 그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자아개념에 대한 이해가 함께 이루어질 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환경은 학생에게 있어 가정과 사회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긍정적인 학교생활은 학생의 모든 행동을 성공적인 관계로 이끌며, 가치로운

개인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을 상승시켜 진로성숙을 이끄는 초석이 된다. 그러므로 진로성숙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로성숙 교육에 국한하여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과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확장된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진로성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진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진로교육 내용과 방법에 있어 교사와 친구와의 관계 향상, 규칙과 질서의 중요성, 단체생활에 대한 흥미 증진을 위한 부분을 넣어 이를 진로와 연결하며 진로성숙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소중한 자신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발견해가는 부분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자아존중감을 키울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의 사회행동과 역할을 결정하는 핵심적 특성이며 긍정적 자아실현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Chae, 2006). 그러므로 보다 효과적인 고등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진로성숙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수 있는 진로교육 프로그램 활동이 함께 행해질 필요가 있다. 진로성숙은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환경과 개인이 함께 상호작용하여 만들어 가는 성장 교육이다.

넷째, 효과적인 진로성숙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상황과 내면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진로의식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계획하고 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정교과를 통한 진로교육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가정교과에서 진로교육의 특성은 라이프스타일을 구축하는 것 즉 직업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 진로(life career)개념에서 진로교육을 진행하는 것이다(Lee, 2011). 가정교과에서는 7학년 ‘청소년의 이해’ 9학년 ‘진로와 생애설계’에서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각 단원의 마무리 과정에서 미래 다양한 직업과 진로탐색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가정교과에서는 실천적 추론 과정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결정할 때는 그 결정으로 인한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결과까지 고려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바람직한 진로 의사결정과 진로성숙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교과는 생애관점에서 학생들의 생활교육을 통해 내면적인 성장을 이끌어내므로 진로성장을 꾀할 수 있는 적절한 교과목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의 영향력과 상호 관련성을 파악한 본 연구는 진로성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진로성숙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내용 구성 및 실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패널자료인 한국복지패널의 7차년도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관련 문항의 보다 세밀한 요인 파악에 다소 아쉬움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진로성숙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 영역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진로성숙과 관련 있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파악을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질 필요가 있다. 연구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정성적인 연구가 병행된다면 진로성숙에 대한 개인적 바램 그리고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종단적인 패널자료 분석을 통하여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 그리고 진로성숙도의 변화 추이와 함께 관련성 정도를 추적 조사한다면 학년별 교육의 필요성과 방향성이 파악될 것이다.

## 참고문헌

- Ahn Y. B. (1984). *Characteristics and Related Factors between Adjustment and Maladjustment ac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Yongin, Korea.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3.
- Brown, S. D. & Lent, R. W. (2005).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 Putting Theory and Research ot Work*. Hoboken, N. J.: John Wiley & Sons Inc.
- Chae, Y. Y. (2006). *Correlat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attachment,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Cho, M. H., Choi S. M. & Um, T. Y. (2006). A Study on the Effects of Attachment to Parents, Friends, Teachers on Career Maturity of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Adaptation to School Lif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15, 81-97.
- Choi, S. J. (2007). Latent Growth Curve Model on Career Maturity and Self-Efficacy, SES, School Record of Adolescent. *Studies on Korean Youth*, 18(3), 31-57.
-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 Administration and use manual*. CA: CBT/Mcgraw-Hill.
- Crites, J. O. (1978). *theory & research handbook for the CMI* Monterey. Calif: CBT/Mcgraw-Hill.
- Ha, S. H. (2006). *The Effects of the Attachment with Parents and Friends o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Maturity : The Role of Self-efficacy as a Mediat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Changwon, Korea.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a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California , America.
- Hwang, M. K. & Moon, Y. J. (2012). The Effect of Career and Work Competen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mong Students in Academic High Schools : With a Focus on the Mediation Effects of Career Maturity.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9(4), 1-25.
- Jeong, M. R. (2005). *On the relationship among Ego Identity, Meaning of Life and Career Matur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P. K. (1997). Future of Education and Multilevel model. *Journal of Korean Education*, 30(3), 437-456.
- Kim, H. O.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reer Maturity Levels of Korean Adolescents and the Related Variables*. Unpublished's doctoral dissertation, Kongu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R. & Lee, H. W.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 Career Maturity and Delinquency of School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23, 33-63.
- Kim, H. S & Kim, O. H. (2007). A Study on the Variable of Career Matur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0(4), 57-68.
- Kim, H. S. (2001).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 Kim, J. H. (1981). *Study on the secondary school teacher's academic background, experience and satisfaction in teaching profession and the types of teachers in guid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wangju, Korea.
- Kim, J. M. (2007).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 attachment, conflictual independ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W. & Kim, O. I. (2007). Relationship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cademic Achievement and Career Maturity.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16(4), 75-82.
- Kim, M. Y. & Cho, S. H.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Facilitating Communication, Adolescents' Self-Esteem and Course Maturit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9(2), 59-84.
- Kim, Y. J. (2013). *The relationship of family strengths of High school students to career maturity: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ju, Korea.
- Kim, Y. R. (2000). An Analysis on the Validation of School Learning Motivation Scale (A) & School-Related Coping Scale (B) and Relations Between (A) & (B).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17, pp.3-37.
- Knafer, R., Wanberg, C. R. & Kantrowitz T. M. (2001). Job search and Employment: A personality-motivational analysis and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 837-855.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992). *Career Education in Middle School Student*,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Seoul, Korea.
-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2). *7<sup>th</sup> Korea Welfare Panel Study*. Seoul, Korean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linger Publishing Co.
- Lee, E. B. & Kim, Y. H. (2004). The causality among Multiple Intelligence, School Environment, Ego-Identity and career deci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17(1), 39-53.
- Lee, J. H. (2009). *The effects of Career Exploration Group Counseling Programs on Career Barriers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 of girls'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yang University, Nonsan, Korea.
- Lee, S. H. (2011). the Life Career Education across the Adolescent' life span through Home Economics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2011 Winter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Conference*. (pp.50-76).
- Lee, S. P. (1990). *An Analysis on the Recognition Difference about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Academic Achievement and on the school adjustment leve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Lim, E., Chung, Y. K. & Sang, L. A. (2001). *A Technical Report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Seoul, Korea.
- Marsh, H. W. (1984). Self-concept: The application of a frame of reference model to explain paradoxical results.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 28, 165-181.
-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09). *The Practical Arts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curriculum*. Seoul,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 Technology.
- Mun, S. K.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indecision and school adjustment: comparison between vocational and academic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Masan, Korea.
- Mun, S. T. & Park, M. J. (2003). A Study on Environmental Variables Influencing the Career Maturity of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at Home and School. *Journal of Korean Agricultural Education*, 35(4), 177-192.
- Na, I. A. (1999). *The Relationship of Sex and Academic Achievement to Career Maturity: in case of the sixth-year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Park, Y. H. (1986). *The social behavior and social learning*. Seoul: Kyoyook publishing.
- Park, H. H. & Seong, T. J. (2008). The Longitudinal Mediation Effect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on Career Maturity Development According to Gender. *Studies on Korean Youth*, 19(1), 117-142.
- Park, H. S. (1998). the Impact of Psychosocial School Environment on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Povert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 105-129.
- Park, S. S.(1999). *The Relationship of School Life Adaptability, school performance with Career Maturity of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 Pintrich, P. R., & Schunk, D. H. (2002).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2nd Ed.)*. Columbus: Merrill-Prentice Hall.
- Resnick, H., Fauble, M. L. & Osipow, S. H. (1970). Vocational crystallization and self-esteem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7(5), 465-467.
- Rosenberg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tter, M. (1985). Resilience in face of adversity: Protective factors and resistance to psychiatric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7(DEC.), 598-611.
- Sau, J. S. (2002). *Effects of school and family background variables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their gen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E.Y & Kim, N. R. (2004). Research of relation to the middle school student's self-concept and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 period.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al*, 13(2), 185-199.
- Shin. H. K. & Kim W. Y. (2005). *A Study on career decision level and determining motivation of Students in high school*. 1th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Association Conferenc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Sobel, M. E. (1982). *some new results on indirect effects and their standard errors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s*. In N. Tuma (ED.), *Sociological Methodology 1986*, Washington, DC: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 Super, D. E. (1953). A theory of vocational development. *The American Psychologist*, 57, 151-163.
- Super, D. E. (1953). Vocational adjustment: Implementing a self-concept.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30, 88-92.
- Super, D. E. (1990). *A life 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D. Brown, & L. Brook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Super, D. E., Osborne, W. L., Walsh, D. J., Brown, S. D. & Niles, S. G. (1992). Developmental Career Assessment and Counseling: The C-DAC Model.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1), 74-80.
- Walker, Q. D. (2010).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self-advocacy of college student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dissertation*, Iowa, University of Iowa Iowa Research Online.
- Woolley, M. E. & Grogan-Kaylor, A. (2006). Protective family factors in the context of neighborhood: Promoting positive school outcomes. *Family Relations*, 55,

95-106.  
Yu, B. K. H. (2003). *A Relationship between a Child's Affection and Self-Respect, and School Adapt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o University, Seosan, Korea.

#### <국문요약>

진로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고등학생에게 있어 진로성숙은 개인적인 자아실현과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국가 인적자원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고등학생의 진로에 대한 이해는 학생의 측면에서 그들이 인지하는 학교에 대한 생각과 개인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바라봄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을 학교생활 적응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파악해 보고자 7차년도 한국복지패널의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고등학생 496명을 분석대상으로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 진로성숙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자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을 하였으며, 학교생활적응과 자아존중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변인 역할을 파악하고자 Baron과 Kennny의 매개효과분석법과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은 평균 2.07이며, 자아존중감은 1.91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에서는 학교규범준수와 친구관계가 학교생활태도, 학교생활흥미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의 진로성숙,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인 학교생활흥미, 학교생활태도, 학교규범준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은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넷째, 학교생활적응과 진로성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고등학생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성을 파악한 본 연구는 학생측면에서 진로성숙을 위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진로성숙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진행에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 논문접수일자: 2014년 01월 29일, 논문심사일자: 2014년 02월 10일, 게재확정일자: 2014년 03월 20일